





































멀리 있는 경우는 통신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전쟁 시에는 봉화를 사용해 상황 등을 알리곤 했단다.

적군이 내려온다는 신호다!



그리고 유선전화도 개발되고



지금은 무선 통신인 휴대폰이 대중화 되어 사용되고 있지.













































